

5월 축제 관광임실 저력 과시

치즈테마파크 어린이날 큰잔치 · 의견문화제 등 방문객 5만여명 달성

임실군표 5월 축제가 지역민과 도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으며, 관광임실의 저력을 과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4일부터 6일까지 의견문화제와 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어린이 날 큰잔치를 찾은 방문객이 5만여명에 달하는 등 으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됐다.

지난 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제97회 어린이날 큰잔치에는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도시민과 타지역 관광객들이 기대 이상으로 방문,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신나게 더 신나게 즐기자’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꾸민 난타, 댄스 등을 시작으로 35사단 군악대, 특별공연, 가족참여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과 무료체험행사, 각종 푸드 트럭 참여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임실N 청년볼 부스를 운영, 차별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하늘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패러글라이딩 및 드론공연을 펼쳐지고, 땅에서는 오수농공단지(대한정공, 세일산업, 완안산업)에서 피자, (우)삼



임실군표 5월 축제가 도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으며, 관광임실의 저력을 과시했다.

립SPC 호남영업팀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했다.

6일까지 3일간 열린 의견문화제에는 전국에서 찾은 반려인과 반려견들로 역대 최대인 3만여명이 찾아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이판사판 축제를 맘껏 즐겼다.

서울에서 반려견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형민(46)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와서 대회도 참여하고, 인근 훈련장에서 반려견과 산책도 즐기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며 “반려견을 키우는 지인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함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는 의견문화제를 직접 홍보해 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어린이날에 기대 이상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아와 놀라기도 하고, 무척이나 흐뭇했다”며 “내년부터는 올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린이 날과 의견문화제에 전국에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출범...48명 위원 구성

순창군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 및 1차 회의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기획단 위원과 관련 실무소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미래발전기획단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선출 및 향후 기획단의 역할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순창군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일반행정과 농업·농촌, 문화관광, 보건복지, 발효미생물 등 총 5개 분과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분과에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북대 설계원 교수와 분과위원장을 겸임한다.

또 기획단이 전국 단위의 기획단으로 구성된 만큼 시기와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실무중심의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해 향후 운영이 한층 기대되고 있다.

황 군수는 “위촉된 위원들은 그동안 순창군에 많은 정책자문과 조언을 해주며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순창군이 지금보다 더욱 도약하고 융속융합할 수 있도록 기획단 위원 여러분들의 최상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대강면, 섬진강 유채꽃 축제 추진

남원시 대강면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인 섬진강 대강 유채꽃 농업 경관 축제 행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강면은 올 1월 초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자문을 얻어 섬진

강 주변 대강 거덕옛길 6만㎡(약 1만 8,000평) 자연경관 단지에 유채 꽃씨를 파종해 가꾸어 왔다.

유채꽃 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화합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축제를 위해 섬진강 명품길 조성, 마을

별 돌담 쌓기, 유채꽃밭 제조, 탐방로 정비, 성공적 축제를 위한 총력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양규상 발전협의회장은 “이번 축제는 참여형 축제인 만큼 주민 화합과 관광 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정구단 흥정현 감독 대한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

홍정현 대한정구협 국대 감독 선임

(순창군청 정구 감독)

순창군은 군청 정구단 흥정현 감독이 최근 열린 대한정구협회 경기력 강화위원회에서 세계정구 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홍 감독은 오는 10월 중국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제16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대한민국의 정구 대표팀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그는 2012년부터 8년간 순창군청 정구단 감독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역량의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특히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복식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 제99회 대회에서는 단체전 은메달, 단식 동메달 및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 침체기에 있던 순창지역 엘리트 정구선수들 지도에 앞장서며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각종 전국정구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정구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순창 정구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은 “그동안 많은 대회 출전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며 “순창군의 위상은 물론 국위 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 체육 역사 최초로 순창군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돼 기쁘다”며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홍보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최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저출산 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임실지부와 인구정책TF팀 및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의식 확산을 유도하고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배부를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임실은 기쁨, 출산은 행복, 아이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임신부 배려문화, 일가정 양립, 공동육아 정착 등을 위한 홍보에 적극 앞섰으며, 어린이날 행사에 인구증가 정책 홍보, 결혼출산 장려를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날제 기획예산실장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홍보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이와 함께 유모차 행진

남원시 출산 분위기 조성

남원시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출산 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행사의 일환으로 ‘아이와 함께 유모차 행진’을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성황리에 가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는 “출산친화행사 아이와 함께 유모차 행진”은 유모차를 타는 시기의 어린이, 부모, 조부모가 다 함께 모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신체활동을 통한 가족 건강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유모차 가족과 제97회 어린이날 행사장에 모인 시민들이 사랑의 광장을 출발해, 춘향교와 승월교를 거쳐 다시 사랑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2km 구간을 오순도순 같이 걸으면서 생활 속 스트레스를 날리고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을 다지며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원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봄철 관광객 맞아 특별 위생점검

임실군은 날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수확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음식점 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역을 찾는 수확여행을 대비해 단체급식소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판매 사용 보관 여부, 조리장 등 영업장 위생관리(청결관리) 냉장, 냉동식품 등 사용 판매 제품에 대한 보관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등을 중

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점검에는 간이세균측정기를 사용해 조리종사자의 손과, 조리도구, 칼, 도마, 등 세균수를 측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오염정도를 파악하여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는 현장계도와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적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위생점검 사전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